

『논어정의』의 『설문해자』(說文解字) 인용 연구*

문수정** · 문준혜***

[초 록]

유보남의 『논어정의』는 역대 주석서들의 다양한 성과를 흡수하고, 당시 학자들의 주석과 고증의 내용을 폭넓게 수용한 청대를 대표하는 『논어』 주석서이다.

『논어정의』는 반드시 근거를 가지고 경전을 해석하는 고증학적 방법으로 『논어』를 주석했는데, 다른 주석서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문해자』를 활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논어정의』에서는 『설문해자』를 인용하여 문자의 의미를 해설했고, 본자(本字)와 가차자(假借字)를 구분하고 본의(本義)와 인신의(引伸義)를 설명했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인.

또한 이 논문은 2017년 12월 2일 한국교통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대회에서 「『論語正義』의 『說文解字』 인용 특징」이라는 제목의 초고형식으로 구두 발표한 바 있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주제어: 유보남, 『논어정의』, 『설문해자』, 고증학, 양주학파, 논어주석서
Liu Baonan (劉寶楠), *Lunyuzhengyi* (論語正義), *Shuowen Jiezi* (說文解字),
KaoZheng Scholars (考證學), Yangzhou School (揚州學派), Annotated Books
of the *Analects* (논어주석서)

『설문해자』의 인용은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문자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문자학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내용도 다수 보인다. 이것은 글자의 본래 의미 탐구와 그것을 통해 경전이 담고 있는 궁극의 ‘도(道)’에 도달할 수 있다는 당시 학자들의 인식과 관계되어 보인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청대에는 본의를 탐구한 『설문해자』가 활발하게 연구되었고, 각종 문헌에 대한 주석에서 경문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검증하고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는 고증학자들의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유보남의 『논어정의』에서는 『설문해자』에 대한 편향성이 더 두드러지며, 유보남과 그를 포함한 건가시기 양주학파의 특징을 형성하였다.

1. 머리말

유보남(1791-1855)의 『논어정의』(1865년 간행)는 『논어』에 대한 역대 주석서들의 다양한 내용을 수용하는 동시에, 당대의 치밀한 고증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세한 주석을 더한 청대(淸代)의 대표적인 『논어』 주석서이다.¹⁾ 본문의 앞에 유공면(1824-1883)이 기록해 놓은 범례를 읽어보면, 이 책이 황간의 『논어의소』(論語義疏)²⁾와 형병의 『논어주소』(論語注疏)³⁾ 등 역대의 중요한 주석서들을 참고하였고, 한당(漢唐)의 석경(石經),

1) 『청사고』(淸史考) 「유보남전」(劉寶楠傳)의 기록에 따르면, 유보남은 황간과 형병의 주석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한대(漢代) 유학자들의 구설(舊說)을 모으고 송대(宋代) 및 청대 경학자들의 성과를 보태 초순의 『맹자정의』(孟子正義)를 모방하여 이 책을 지었다(病皇邢疏蕪陋, 乃蒐輯漢儒舊說, 益以宋人長義及近世諸家, 仿焦循孟子正義例, 先爲長篇, 次乃薈萃而折衷之, 著論語正義) (陸曉華, 陸曉華 (2001), 「論劉寶楠『論語正義』的訓詁方法及特點」, 『安徽教育學院學報』, (02), p. 80. 재인용).

2) 『논어의소』: 남조(南朝)의 양(梁)나라 황간(488-545)의 『논어』 주석서이다. 하안(何晏)의 『논어집해』(論語集解)에 소(疏)를 붙인 것으로, 남송 때 없어졌다가 청 건륭 연간에 일본에서 다시 중국으로 전해져 『사고전서』(四庫全書)에 편입되었다.

육덕명의 『경전석문』⁴⁾ 등에 실린 각 판본의 문자 차이를 고찰했으며, 적호(翟灝, 1736-1788)의 『사서고이』(四書考異)⁵⁾와 풍등부(馮登府, 1783-1841)의 『논어이문소증』(論語異文疏證) 등 청대 고증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두루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 이 때문에 주석이 지나치게 자세하고 방대한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이전의 주석을 집대성하고 청대 고증학의 성과를 최고조로 반영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하다.⁷⁾

『논어정의』의 해설 형식은 먼저 경문(經文)을 수록하고, 그 아래에 하안의 『논어집해』⁸⁾의 주석을 그대로 인용한 뒤, 경문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 하안이 주석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체재로 이루어졌다. 『논어』 「학

- 3) 『논어주소』: 송(宋) 형병(932-1011)의 『논어』 주석서이다. 하안의 『논어집해』와 당(唐)나라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 등에 근거하여 옛 주석을 개정하였다.
- 4) 『경전석문』: 당(唐) 육덕명(550?-630)이 경전의 원문 및 주석의 자음(字音)과 자의(字義)를 풀이하고 판본의 문자 차이 등을 기록한 책이다. 『역』, 『고문상서』, 『모시』, 『주례』, 『의례』, 『예기』, 『춘추좌씨전』, 『춘추공양전』, 『춘추곡량전』, 『효경』, 『논어』, 『노자』, 『장자』, 『이야』 및 「서록」(序錄)으로 구성되었다.
- 5) 『사서고이』: 청(淸) 적호(翟灝)가 사서(四書)의 형성과 전승, 내용, 일문(逸文), 개설, 판본 등을 종합적 설명한 책으로, 모두 36편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학자들의 설을 널리 인용하고 자신의 해설을 덧붙였다. 『논어정의』에서 많이 인용하였다.
- 6) “漢·唐·宋石經及皇侃疏·陸德明『釋文』所載各本，咸列於疏……翟氏灝『四書考異』·馮氏登府『論語異文疏證』，於諸史及漢·唐·宋人傳注，各經說·文集，凡引『論語』有不同者，悉爲列入，博稽同異，辨證得失……” (『논어정의』 「범례」).
- 7) 장순휘(張舜徽)는 『청대양주학기』(淸代揚州學記)에서 “이 책은 고증이 자세하여 형병의 옛 주석의 성과를 크게 뛰어넘었으며, 청대 경학 저술 가운데 매우 뛰어난 작품이 되었다.”(這部書考證詳盡，遠遠勝過了邢昺的舊疏，成爲淸代經學著述中的出色作品。)고 평가하였다(班吉慶(2001), 「劉寶楠『論語正義』征引『說文解字』略論」, 『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6), p. 67. 재인용).
- 8) 『논어집해』: 후한(後漢)의 하안(193?-249)이 공안국(孔安國), 포함(包咸), 주씨(周氏), 마옹(馬融), 정현(鄭玄), 진군(陳群), 왕숙(王肅), 주생렬(周生烈) 등 당시 학자들의 『논어』 주석을 모으고 독자적인 견해를 덧붙여 만든 책이다. 한위(漢魏)의 고주(古註)를 충실하게 보존하였기 때문에 논어의 고훈(古訓)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學而)의 첫 번째 경문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때에 따라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② 注, 馬曰, “子者, 男子之通稱, 謂孔子也.” 王曰, “時者, 學者以時誦習之. 誦習以時, 學無廢業, 所以爲說懌.”

(하안의) 주: 마옹(馬融)은 “子是 남자의 통칭으로 공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왕숙(王肅)은 “시는 배우는 사람이 때때로 외우고 익히는 것이다. 외우고 익히기를 때에 따라 하므로 배움에 그침이 없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것이다.”라고 하였다.

③ 正義曰, 曰者, 皇疏引『說文』云, “開口吐舌謂之爲曰.” 邢疏引『說文』云, “詞也. 從口乙聲. 亦象口氣出也.”, 所引『說文』各異. 段氏玉裁校定作“從口乙. 象口氣出也.” 又引『孝經釋文』云, “從乙在口上, 乙象氣, 人將發語, 口上有氣, 故曰字缺上也.” 學者, 『說文』云, “敎, 覺悟也. 從教從冂. 冂, 尙矇也. 白聲. 學, 篆文敎省.” 『白虎通·辟雍』, “學之爲言覺也, 以覺悟所未知也.”, 與『說文』訓同.…… 時習者, 『說文』, “時, 四時也.”, 此謂春夏秋冬. 而日中晷刻亦得名時, 引申之義也.…… 之者, 『詩』「蓼莪」鄭箋云, “之, 猶是也.” 引常訓. 不亦說乎者, 『孟子』「滕文公上」, “不亦善乎.” 趙歧注, “不亦者, 亦也.” 『爾雅』「釋詁」, “說, 樂也.” 皇本凡說皆作悅. 『說文』有說無悅, 悅字俗體.…… 乎者, 『說文』云, “乎, 語之餘也.” 『廣雅』「釋詁」, “乎, 詞也, 此用爲語助.”

『논어정의』의 주: ‘曰’은 황간의 주석에서는 『설문』을 인용하여 “입을 열고 혀를 움직여서 말하는 것을 曰이라고 한다.”고 하였고, 형병의 주석에서는 『설문』을 인용하여 “혀사다. 口를 의미성분으로 하고 乙은 발음성분이다. 또한 입의 기운이 나오는 모습을 상형했다.”고 하였다. 인용한 『설문』이 각기 다르다. 단옥재는 이를 교정하여 “口와 乙로 구성되었다. 입의 기운이 나오는 것을 상형했다.”고

하였다. 또 『효경석문』을 인용하여 “乙이 口의 위에 있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乙은 기운을 상징한다. 사람이 말을 하려면 입에 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曰자는 윗부분이 터져 있다.”고 하였다. 學은 『설문』에서 ‘敎(효)는 ‘깨우치다’의 뜻이다. 敎로 구성되었고 冂으로 구성되었는데, 冂은 ‘여전히 어리석다’는 뜻이다. 白는 발음성분이다. 學은 전문(篆文)으로 敎의 생략형이다.”라고 하였다. 『백호통』 「벽옹」에서는 “學은 ‘깨닫다’라는 말이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설문』의 뜻과 같다.”고 하였다.……時習은 『설문』에서 “時는 ‘사계절’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그러나 하루 중 잠깐의 시각 역시 時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인신된 뜻이다.……之는 『시』 「요아」에 대한 정현의 전(箋)에서 “之는 是와 같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뜻풀이를 인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不亦說乎’는 『맹자』 「등문공상」의 ‘또한 선하지 아니한가!’에 대한 조기의 주(注)에서 “또한 ~하지 아니한가(不亦)는 ‘또한 ~하다(亦)’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야』 「석고」에서 “說은 ‘즐겁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황간본에는 說이 모두 悅로 쓰여 있다. 『설문』에는 說이 없고 悅만 있다. 乎는 『설문』에서 “乎는 ‘문장의 남은 소리’이다.”라고 하였고, 『광아』 「석고」에서 “乎는 허사이다. 이것은 어조사로 쓰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④ 注‘子者’至‘悅懌’.

(하안의) 주 ‘子者’부터 ‘悅懌’까지.

⑤ 正義曰, 『白虎通』 「號篇」, “子者, 丈夫之通稱也.”……誦習者, 『說文』, “誦, 諷也, 諷, 誦也.”……『說文』, “習, 鳥數飛也.” 引申爲凡重習·學習之義.……學不廢業者, 廢, 棄也. 『說文』, “業, 大版也. 所以飾懸鍾鼓, 捷業如鋸齒.” 故亦名業.……悅懌者, 『說文』新附, “懌, 說也.” 注重言以曉人.

『논어정의』의 주: 『백호통』 「호편」에서 “子는 ‘장부의 통칭’이다.”라고 하였다. 誦習은 『설문』에서 “誦은 ‘외우다(諷)의 뜻이고,

諷은 ‘외우다’(誦)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설문』에서 “짧은 ‘새가 자주 난다’는 뜻이다. 인신되어 무릇 ‘거듭 익힌다,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 되었다.”고 했다. ‘學不廢業’에서 廢는 ‘버리다’라는 뜻이다. 『설문』에서 “業은 큰 널빤지이다. 이것으로 종이나 북에 매달아 장식한다. 들쭉날쭉한 모습이 마치 톱니와 같다.”고 했다. 그래서 또한 業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悅懼은 『설문』의 신부자(新附字)에서 “懼은 ‘기쁘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주에서 거듭 말하여 사람들이 알도록 한다.

①은 『논어』의 경문으로 주석의 대상이다. ②는 경문에 대한 하안의 주석으로, 형병의 『논어주소』에 인용된 『논어집해』의 주석을 그대로 가져와 수록한 것이다.⁹⁾ ③은 경문에 대한 유보남의 주석이다. ④는 아래에서 하안의 주석에 대해 설명한다는 표시이다. ⑤는 하안의 주석에 대한 유보남의 해설이다. 『논어정의』에서는 모든 경문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주해하였고, 주석의 대상을 ‘~者’로 표시하고 설명하였다.

주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子曰’의 ‘曰’에 대해 『논어 의소』와 『논어주소』의 주석을 인용하고, 다시 단옥재(段玉裁)의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 근거하여 두 주석서 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學’은 『설문해자』와 『백호통』을 인용하여 의미를 풀이한 뒤, 다시 『순자』(荀子)「권학」(勸學)편과 『예기』(禮記)「왕제」(王制)편을 들어 배움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였다. ‘時’는 『설문해자』를 인용하여 설명하였고, ‘之’는 『시』「요아」에 대한 정현의 전(箋)에서 ‘之’를 설명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不亦’은 『맹자』「등문공상」의 ‘不亦善乎’¹⁰⁾에 대한 조기의 주를 인용하여 설명하였고, ‘說’은 『이아』「석고」와 『논어』의 다른 구절을 인용했으며, ‘乎’는 『설문해자』와 『광아』(廣雅)¹¹⁾를 인용하여 설

9) 注用『集解』者, 所以存魏·晉人著錄之舊, 而鄭君遺注, 悉載疏內 (「범례」).

10) 『맹자』「등문공」 02-02 “然友之鄒, 問於孟子, 孟子曰, 不亦善乎, 親喪, 固所自盡也.”

명하였다.

경문에 대한 주석이 끝난 다음에는 하안의 주석에서 사용한 ‘子’, ‘誦’, ‘習’, ‘廢’, ‘業’, ‘擇’ 등의 글자¹²⁾에 대해 『백호통』과 『설문해자』 및 다른 경전의 주석을 인용하여 해설하였다. 유보남은 이와 같이 경전에 쓰인 글자를 기존의 주석서나 자서(字書) 등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특히 『설문해자』를 해설의 근거로 인용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¹³⁾ 『논어정의』 전편에 걸쳐 『설문해자』의 인용 회수가 약 850여 회에 달하고, 인용의 방식이나 목적 또한 다양하다. 이는 유보남이 『설문해자』를 주석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논어정의』에서 『설문해자』를 인용한 양상을 정리해보고, 기존의 『논어』 주석서 및 동시대의 다른 주석서와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논어정의』의 『설문해자』 인용 양상

시대와 지역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주석의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주석은 대체로 단어를 풀이하는 것에서 시작

-
- 11) 『광어』: 위(魏) 장읍(張揖)이 『이아』의 미비한 내용을 보충하고, 주(周), 진(秦), 서한(西漢) 시기의 전주(箋注) 가운데 참고할 가치가 있는 것을 모아 엮은 책이다. 편목의 분류는 모두 『이아』를 따랐다.
 - 12) 고대 중국어에서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글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글자를 대상으로 주석을 진행한 것은 실제로 단어를 대상으로 설명한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13) 『논어』 「팔인」(八佾) 편의 통계를 예로 들면, 모두 96개의 단어를 설명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 경우가 14회, 『설문』을 인용하여 설명한 경우가 53회, 『이아』를 인용하여 설명한 경우가 29회, 『백호통』과 『광어』를 인용하여 설명한 경우가 각각 7회에 달했다. 이는 『설문』을 인용하여 단어를 해설한 경우가 월등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된다. 『논어정의』 역시 경문이나 주문을 설명할 때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각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기존의 주석과 다른 점은 매번 해설의 근거를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희(朱熹)의 『논어집주』(論語集註)에서 「학이」의 첫 번째 경문에 대해 “學之爲言效也……翥, 鳥數飛也……說, 喜意也.”(學은 ‘본받다’라는 말이다……翥은 ‘새가 자주 난다’는 뜻이다……說은 ‘기뻐하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한 것을 살펴보면, 그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논어정의』에서 인용한 서적은 매우 다양하다. 기존의 경전 주석은 물론이고, 『이아』,¹⁴⁾ 『광아』, 『백호통』,¹⁵⁾ 『석명』(釋名),¹⁶⁾ 『자림』(字林),¹⁷⁾ 『한간』(汗簡),¹⁸⁾ 『삼창』(三倉),¹⁹⁾ 『창힐편』(蒼頡篇),²⁰⁾ 『방언』(方言)²¹⁾

-
- 14) 『이아』: 경전에 사용된 문자의 뜻을 설명하는 사전적인 성격을 지닌 책으로,周公(周公)이 지었다는 설이 있으나 정확한 편찬 시기와 저자는 알 수 없다. 13경 가운데 하나이다.
- 15) 『백호통』: 후한(後漢)의 장제(章帝)가 79년에 백호관(白虎觀)에 학자들을 모아 놓고, 학자들마다 경서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에 대해 토론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을 반고(班固)가 정리하여 기록한 책이다. 『백호통의』(白虎通義), 『백호통덕론』(白虎通德論)이라고도 한다.
- 16) 『석명』: 한(漢) 유희(劉熙, ?~?)가 『이아』와 비슷한 체재로 한자를 분류한 뒤, 성훈(聲訓)의 방식으로 뜻을 풀이한 책이다. 소리의 유사성에 따라 뜻을 풀이하여 억지스러운 내용이 많지만, 어원의 탐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 17) 『자림』: 서진(西晉)의 여침(呂忱, ?~?)이 『설문해자』를 계승하여 540부수 아래 12,824개의 글자를 수록한 자전이다. 예서를 표제자로 삼아 후대 『옥편』(玉篇)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 당(唐)에서 널리 활용되다가 일찍이 원대(元代)에 실전되었다.
- 18) 『한간』: 송(宋) 곽충서(郭忠恕)가 『설문해자』를 계승하여 540부수에 따라 고문자 형태를 쓰고 그와 관련된 각종 이체자를 나열한 자서이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육국(六國)의 문자를 수집, 정리하여 고문자 연구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인다.
- 19) 『삼창』: 한대(漢代)에 편찬된 사전으로, 창힐편(蒼頡篇), 원력편(爰歷篇), 박학편(博學篇)의 3편으로 이루어졌다. 후에는 세 편을 합하고 맨 앞의 편명을 따서 창힐편(蒼頡篇)이라고 하였다.
- 20) 18번 각주 참고.

등의 다양한 자서류(字書類) 서적을 인용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인용한 서적은 바로 허신(許慎)의 『설문해자』이다. 『설문해자』는 글자를 해설할 때 먼저 의미를 제시하고 그것의 구조를 분석한 뒤 이체자(異體字)나 독음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²²⁾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글자의 의미를 알려주는 자전이 아니라, 글자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러한 구조를 통해 표현된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중점이 있는 문자학 저술이다. 이 때문에 『논어정의』에서 『설문해자』를 인용하여 경문을 해설할 때는 의미 풀이의 근거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 이것을 주석의 내용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1. 단어의 의미 해설

경문이나 주문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해설할 때 『설문』을 인용한 경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이」 01-01 “子曰，學而時習之，不亦說乎。”의 ‘學’에 대하여
 ▶ ‘學’은 『설문』에서 “‘깨우치다’의 뜻이다. ‘教’와 ‘門’을 의미성분으로 한다. ‘門’은 ‘여전히 어리석다’는 뜻이다. ‘臼’는 발음성분이다. ‘學’은 전문으로, ‘斆’의 생략형이다.”라고 하였다. (學者, 『說文』云, “斆, 覺悟也. 從教從門. 門, 尙矇也. 臼聲. 學, 篆文斆省.”²³⁾)

21) 『방언』: 서한(西漢)의 양웅(揚雄, BC 53-AD 18)이 『이아』에 수록된 한자를 기준으로 여러 지역의 방언을 조사, 수집하여 편찬한 일종의 어휘집이다. 본래의 서명은 『유현사자절대어석별국방언』(輶軒使者絕代語釋別國方言)이다.
 22) 예를 들어 ‘論’은 “議也. 从言侖聲. (盧昆切)”, ‘語’는 “論也. 从言吾聲. (魚舉切)”의 형식으로 해설하였다.
 23) 『설문』 권3 教부.

경문에 쓰인 ‘學’의 의미를 『설문』에 근거하여 ‘(가르침을 통해) 깨우치다’로 설명하였다. ‘學’을 단순히 ‘배우다, 학습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 어리석음을 깨우치다’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백호통』 「벽옹편」의 “學이라는 말은 ‘깨우치다’이다. 아직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설문』과 해석이 같다.”(學之爲言覺也, 以覺悟所未知也. 與『說文』訓同)라는 문장을 더하여, ‘學’을 『설문』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부연하였다. 대개 『설문』에 근거하여 단어의 의미를 해설할 때는 『설문』에서 의미를 설명한 부분만 인용한 경우가 많은데, ‘學’의 경우에는 『설문』의 해설 내용 전체를 인용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學’자가 표제자인 ‘黻’의 篆文임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구조의 분석을 통해 ‘學’을 ‘깨우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를 보여준 것 같다.

② 「학이」 02-02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의 ‘犯’에 대하여

▶ ‘犯’을 『이아』 「석고」에서는 ‘이기다’라는 뜻이라고 했고, 『설문』에서는 ‘침범하다’라는 뜻이라고 했다. (犯者, 『爾雅』 「釋詁」, “犯, 勝也.”²⁴⁾ 『說文』, “犯, 侵也.”)

경문의 ‘犯’에 대해 『이아』와 『설문』의 뜻풀이를 모두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이 때 『설문』은 문자 해설 전체가 아니라, 의미 풀이 부분만 사용하였다.

③ 「학이」 02-04 “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의 ‘務’에 대하여

▶ ‘務本’은 『설문』에서 ‘務’는 ‘향하여 나아가다’의 뜻이라고 했고, 고유의 『여씨춘추』 「효행담」에서는 ‘구하다’와 의미가 같다고

24) 『설문』 권10 犬부, “犯, 侵也. 从犬巳聲.”

했다. (務本者, 『說文』曰, “務, 趣也.”²⁵⁾ 高誘『呂氏春秋』「孝行覽」注, “務, 猶求也.)

④ 「학이」 04-02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의 ‘吾’에 대하여
 ▶ ‘吾’는 『이아』 「석고」에서는 ‘나’라는 뜻이라고 했고, 『설문』에서는 ‘내가 자신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吾者, 『爾雅』 「釋詁」, “吾, 我也.” 『說文』, “吾, 我自稱也.”²⁶⁾)

⑤ 「위정」(爲政) 12-01 “禮之用, 和爲貴.”의 ‘用’에 대하여
 ▶ ‘用’은 『방언』에서는 ‘행하다’의 뜻이라고 했고, 『설문』에서는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用者, 『方言』, “用, 行也.” 『說文』, “用, 可施行也.”²⁷⁾)

⑥ 「팔일」(八佾) 08-01 “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의 ‘素’에 대하여
 ▶ ‘素’는 『설문』에서 ‘흰 빛깔의 비단’이라고 했는데, 인신되어 모든 사물의 흰색 장식을 일컫게 되었다. (素者, 『說文』, “素, 白致繕也.”²⁸⁾ 引伸爲凡物白飾之稱.)

이상은 단어의 의미를 해설할 때 『설문』을 인용한 예인데, 단독으로 『설문』만 인용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자서나 경전의 주석을 함께 인용한 경우도 많았다. 또 『설문』의 글자 구조 분석 부분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하였고, 『설문』의 의미 풀이 부분만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25) 『설문』 권14 力부, “務, 趣也. 从力攷聲.”

26) 『설문』 권3 口부, “吾, 我自稱也. 从口五聲.”

27) 『설문』 권4 用부, “用, 可施行也. 从卜从中. 衛宏說. 凡用之屬皆从用.”

28) 『설문』 권14 糸부, “素, 白緻繕也. 从糸, 叒, 取其澤也. 凡素之屬皆从素.”

2.2. 본자(本字)와 가차자(假借字)에 대한 설명

『설문』에 근거하여 경전에 쓰인 글자의 가차 현상을 설명한 경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학이」 05-03 “節用而愛人”의 ‘愛’에 대하여

▶ (‘사랑하다’라는 의미의) ‘愛’는 『설문』에서 ‘悉’로 쓰여 있다. (지금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愛는) ‘행동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글자로, 또 다른 뜻이다. (‘사랑하다’라는 의미의) 본래 글자는 ‘悉’로 쓰며, ‘사랑하다’의 뜻이다. ‘心’을 의미성분으로 하고 ‘死’를 발음성분으로 한다. 지금 경전에서는 모두 ‘愛’를 가차하여 ‘悉’의 의미로 썼다. (愛²⁹, 『說文』作悉³⁰, 行貌. 另一義. 本字作悉, 惠也. 從心, 死聲. 今經典皆假愛爲悉.)

『논어』의 이 구절에서 ‘愛’는 ‘사랑하다’의 뜻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이므로 별도의 주석이 필요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논어정의』에서는 굳이 『설문』을 인용하여 ‘愛’는 본래 ‘행동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글자이며,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는 ‘悉’임을 밝혔다. 그리고 경전에서 사용한 ‘愛’자는 ‘悉’의 의미로 가차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문자의 본래 의미와 형태를 탐구하는 문자학에서 논의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³¹⁾ 『논어정의』에서는 이와 같이 『설문』을 인용하여 경전에 쓰인 글자의 본래 형태와 가차 현상에 대해 설명한 경우가 많다.

29) 『설문』 권5 欠部, “愛, 行兒. 从攷悉聲.”

30) 『설문』 권10 心部, “悉, 惠也. 从心死聲. 憇, 古文.”

31)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의 ‘悉’자 아래에 “愛자가 쓰이면서 悉가 없어졌다.”(乃自愛行而悉廢矣.)는 내용이 나온다. 또 『설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悉자를 愛로 바꿔 쓰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 경우 모두 悉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도 하였다.

② 「위정」 06-01 “孟武伯問孝。子曰，父母唯其疾之憂。”의 ‘憂’에 대하여

▶ 『설문』에서 ‘憂’는 ‘근심하다’의 뜻이고, ‘憂’는 ‘사이 좋게 가다’의 뜻이다. 두 글자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경전에서는 ‘憂’를 가차하여 ‘憂’의 의미로 썼다. 또 예변되어 ‘憂’의 형태로 쓴다. (『說文』, 憂,³²⁾ 愁也. 憂,³³⁾ 和之行也. 二字義別. 經典多段憂爲憂, 又隸變作憂.)

③ 「위정」 16-01 “子曰，攻乎異端，斯害也已。”의 ‘端’에 대하여

▶ 『설문』에서 ‘端’은 ‘식물이 처음 생겨났을 때의 맨 앞부분’이고, ‘端’은 ‘바르다’의 의미라고 했다. 두 글자는 의미가 다르다. 지금 경전에서는 ‘端’을 가차하여 ‘端’의 의미로 썼다. 『예기』의 주에서 ‘端’은 ‘근본’이라고 했고, 『맹자』 「공손추」의 주에서 ‘端’은 ‘시초’라고 했다. (『說文』云, 端,³⁴⁾ 物初生之題也. 端,³⁵⁾ 直也. 二字義別, 今經傳多段端爲端. 『禮記』注, 端, 本也. 孟子公孫丑注, 端者, 首也.)

④ 「옹야」(雍也) 06-06 “子謂仲弓曰，犁牛之子騂且角，雖欲勿用，山川其舍諸？”의 ‘舍’에 대하여

▶ 『설문』에서 빈객들이 머무는 곳³⁶⁾을 ‘舍’라고 말한다. ‘捨’는 ‘택하다’의 뜻이다. 마땅히 구별해야 하는데, 지금 경전에서는 대부분 ‘舍’를 가차하여 ‘捨’의 의미로 썼다. (『說文』市居曰舍,³⁷⁾ 捨,³⁸⁾ 擇也. 誼別, 今經典多假舍爲捨.)

32) 『설문』 권10 心부, “憂, 愁也. 从心从頁.”

33) 『설문』 권5 攴부, “憂, 和之行也. 从攴憂聲. 『詩』曰, 布政憂憂.”

34) 『설문』 권7 耑부, “耑, 物初生之題也. 上象生形, 下象其根也. 凡耑之屬皆从耑.”

35) 『설문』 권11 立부, “端, 直也. 从立耑聲.”

36)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서 “此市字非買賣所之, 謂賓客所之也.”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市’를 시장이 아닌 빈객이 머무는 곳으로 해석하였다.

37) 『설문』 권5 宀부, “舍, 市居曰舍. 从宀中, 象屋也. 口象築也.”

38) 『설문』 권12 手부, “捨, 釋也. 从手舍聲.”

위의 예 가운데 ‘愛, 憂, 端’ 등은 이미 본래의 의미보다 가차된 의미로 더 널리 사용되므로, 이를 밝히지 않아도 경문의 의미를 오해할 소지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글자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고 경전에서는 다른 글자로 가차되었음을 밝힌 것은, 글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의리(義理)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 고증학자들의 학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2.3. 본의(本義)와 인신의(引伸義)에 대한 설명

『설문』에 근거하여 경전에 쓰인 글자의 본래 의미와 인신된 의미를 설명한 경우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이」 01-0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時’에 대하여
 ▶ ‘時習’은 『설문』에서 ‘時’는 ‘사계절’이라고 했다. 이것은 춘하추동을 말한다. 그러나 하루 중의 짧은 시간 역시 ‘時’라고 부를 수 있으니, 이것은 인신된 뜻이다. (時習者, 『說文』, “時³⁹⁾, 四時也.”, 此謂春夏秋冬. 而日中晷刻亦得名時, 引申之義也.)

이 문장에서 ‘時’는 ‘사계절’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인신된 의미로 사용되었다. 본자와 가차지를 설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먼저 『설문』을 인용하여 본래의 의미를 밝힌 후에 경전에서의 의미는 인신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경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문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한 주석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9) 『설문』 권7 日部, “時, 四時也. 从日寺聲. 晷, 古文時从之日.”

② 「팔일」 03-05 “子曰，夷狄之有君，不如諸夏之亡也。”의 ‘亡’에 대하여

▶ 『설문』에서 “‘亡’은 ‘도망하다’의 뜻이다. ‘人’과 ‘亡’을 의미성분으로 한다. ‘𠄎’⁴⁰⁾은 ‘없다’의 뜻이다. ‘亡’을 의미성분으로 하고 ‘無’는 발음성분이다.”라고 하였다. ‘亡’은 본래 사람이 도망하여 숨는 것을 말하는데, 인신되어 ‘없다’의 뜻이 되었다. (『說文』, 亡,⁴¹⁾ 逃也. 從人從亡. 𠄎, 亡也. 從亡無聲. 亡本謂人逃匿, 引申爲亡有之義.)

③ 「술이」(述而) 07-02 “子曰，默而識之，學而不厭，誨人不倦，何有於我哉。”의 ‘厭’에 대하여

▶ ‘厭’을 『설문』에서는 ‘獸’으로 썼다. ‘배부르다’의 뜻이다. 인신되어 ‘만족하다’, ‘버리다’의 의미로 풀이한다. (厭, 『說文』作獸, 飽也. 引申之, 訓足, 訓棄.)

2.4. 기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어정의』에서는 많은 경우 『설문』을 인용하여 경전에 쓰인 문자의 의미를 해설하고, 본자와 가차자, 본의와 인신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설문』은 『논어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석의 근거로 활용되었고, 이 때문에 『논어정의』의 주석 내용은 경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문자의 의미 풀이에 그치지 않고 문자학적 탐구까지 확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을 인용하지 않고 설명한 경우도 많다.

① 「학이」 01-01 “子曰，學而時習之，不亦說乎。”의 ‘之’에 대하여

▶ ‘之’⁴²⁾는 『시』 「요아」에 대한 정현의 전(箋)에서 ‘之’는 ‘是[이

40) 『설문』 권12 亡부, “𠄎, 亡也. 從亡無聲.”

41) 『설문』 권12 亡부, “亡, 逃也. 從入从亡. 凡亡之屬皆從亡.”

42) 『설문』 권6 之부, “之, 出也. 象艸過中, 枝莖益大, 有所之. 一者, 地也. 凡之之屬皆從之.”

것]와 같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풀이를 인용한 것이다. (之者, 『詩』「蓼莪」鄭箋云, “之, 猶是也.” 引常訓.)

‘之’자에 대해 유보남은 『설문』을 인용하지 않고 다른 경전의 주석에서 일반적인 뜻풀이를 가져와 설명했다. 이것은 『설문』에서 ‘之’를 ‘出(밖으로 나가다)’의 의미로 풀이하여, 경전에 쓰인 ‘之’의 의미와 무관하기 때문일 것이다.

② 「학이」 01-0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說’에 대하여
 ▶ 『이아』 「훈고」에서 “‘說’은 ‘즐겁다’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황간의 『논어의소』에는 ‘說’이 모두 ‘悅’로 쓰여 있다. 『설문』에는 ‘說’만 있고 ‘悅’자는 없다. ‘悅’자는 속체이다. 공자께서 스스로 “분발(奮發)하여 끼니 챙기는 것조차 잊었고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는다.”⁴³⁾고 말씀하셨고, 또 안회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을 칭찬하며 “아무리 가난해도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다.”⁴⁴⁾라고 하셨으니, 이는 모두 학문을 즐거워하여 그런 것이다. (『爾雅』 「釋詁」, “說, 樂也.” 皇本凡說皆作悅. 『說文』有說無悅, 悅字俗體. 夫子自言: “發憤忘食, 樂以忘憂”, 又稱顏回好學, 雖貧不改其樂, 皆是說學有然也.)

유보남이 ‘說’을 설명하며 『이아』를 인용한 이유는 『설문』에서 ‘說’은 ‘悅’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설문』에서는 ‘說’자를 ‘說, 釋也. 从言兌. 一曰談說.’(說은 ‘풀다’의 의미이다. ‘言’과 ‘兌’를 의미성분으로 한다. 일설에 ‘이야기하다’의 뜻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다. 단옥재는 이것을 ‘기뻐하다[悅懌]’로 풀이했지만,⁴⁵⁾ 『논어정의』에서는 단옥재의 풀이

43) 『논어』 「술이」(述而) 18장에 보인다.

44) 『논어』 「옹야」(雍也) 9장에 보인다.

45) 『설문해자주』 권3 言部, “說, 說釋也. 說釋卽悅懌. 說, 悅, 釋, 懌皆古今字. 許書無悅懌二字也. 說釋者, 開解之意. 故爲喜悅. 采部曰, 釋, 解也. 从言兌聲. 几部曰, 兌, 說也. 本周易. 此從言兌會意. 兌亦聲. 弋雪切. 十五部. 一曰談說. 此本

를 채택하지 않았다.

때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어의 의미를 제시한 경우도 있고, 경전에서 일반적인 뜻을 상훈(常訓)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경우도 있다.

③ 「학이」 12-01 “有子曰, 禮之用, 和爲貴. 先王之道, 斯爲美……”
의 ‘斯’와 ‘美’에 대하여

▶ 『시』 「은기뢰」의 전에서 ‘斯’⁴⁶⁾는 ‘이것’의 의미라고 했고, 『주관』 「대사도」의 주에서 ‘美’⁴⁷⁾는 ‘선하다’의 뜻이라고 했는데, 모두 일반적인 뜻풀이다. (『詩』 「殷其雷」傳, “斯, 此也.” 『周官』 「大司徒」注, “美, 善也.” 並常訓.)

이상은 『설문』을 인용하지 않고 문자를 해설한 예들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주석의 대상이 되는 글자가 『설문』에 없거나, 또는 본의와 인신의, 본자와 가차자 등 문자학적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문』은 한자의 구조에 근거하여 본래의 의미를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정약용(丁若鏞)은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에서 ‘學’자에 대해 설명하면서 “『설문』에서 “‘學’은 깨우친다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각이 후각을 깨우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글자를 만들게 된 원래의 뜻이기는 하지만, 이 경문에 마땅히 끌어다 댈 바는 아니다.”(駁曰: 說文曰, 學, 覺也. 謂先覺覺後覺也. 然此亦造字之原意, 非此經之所宜引.)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논어고금주』에서는 『설문』에 근거하여 문자를 해설한 경우가 거의 없다. 같은 이유로 『논어정의』에서도 모든 글자를 『설문』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無二義二音. 疑後增此四字. 別音爲失切.”

46) 『설문』 권14 斤부, “斯, 析也. 从斤其聲. 『詩』曰, 斧以斯之.

47) 『설문』 권4 羊부, “美, 甘也. 从羊从大. 羊在六畜主給膳也. 美與善同意.”

3. 『논어정의』의 『설문해자』 인용 특징과 의미

2장에서는 『논어정의』에서 『설문』을 인용한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전 시기 『논어』 주해에서 『설문』을 인용한 방식 및 청대의 다른 주석서에서 『설문』을 인용한 방식을 『논어정의』의 그것과 대비해 볼 것이다. 이전 시기 주석서와의 대비는 동일한 구절 내의 같은 글자에 대한 『설문』 인용 양상을 비교하는 방식을 택했고, 동시대 주석서와의 대비는 두 주석서 전체에서 『설문』 인용문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대비를 통해 청대의 경전 주석서인 『논어정의』에서 문자학서인 『설문』을 인용한 것이 어떠한 학술적 특징과 의미를 내포하는지 살펴보겠다.

3.1. 『논어의소』 및 『논어주소』와의 대비

유보남의 『논어정의』에서 『설문』의 내용이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는 점은 이전 시기 『논어』 주석서에서 『설문』을 인용한 주해 방식과 대비시켜 봄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앞서 『논어정의』의 체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유보남은 주해 대상의 경문 아래에 황간의 『논어의소』와 형병의 『논어주소』 내용을 함께 수록하였다. 그렇다면 동일한 구절에 대한 황간과 형병의 주해에서도 『설문』을 인용한 경우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유보남의 인용 내용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비교를 통해 『논어정의』의 『설문』 인용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하나의 예를 보자. 『논어의소』, 『논어주소』, 『논어정의』 세 주석서에서 공통적으로 『설문』을 인용해서 설명한 맨 첫 글자는 「학이」 편의 「曰」자에 대해서이다.⁴⁸⁾

- ◆ 원문: 『논어』 「학이」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 주해대상 글자: ‘曰’

① 『논어의소』

『논어의소』에서는 ‘曰’에 대하여 『설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허씨 설문에서 “입을 열고 혀를 움직여서 말하는 것을 ‘曰’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 다음 부분이 공자가 입을 열어서 한 말이므로 ‘子曰’을 맨 앞에 붙인 것이다. (許氏說文云, 開口吐舌謂之爲曰. 此以下是孔子開口談說之語, 故稱子曰爲首也.)⁴⁹⁾

『설문』에 따르면 ‘曰’은 소리를 내서 직접 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황간이 『설문』을 인용한 것은 가장 먼저 ‘曰’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한 ‘曰’의 의미와 ‘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근거로 이 글자가 해당 구절에 쓰인 이유를 밝혔다.

② 『논어주소』

『논어주소』에서는 ‘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曰’이라는 것은 『설문』에서 “속으로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詞]⁵⁰⁾이다. ‘입[口]’에서 뜻을 취하고 ‘을(乙)’에서 음을 취하였다.

48) 「학이」, 「위정」 두 편에 대하여 『논어정의』에서 『설문』을 인용하여 풀이한 글자와 중복되는 건수를 조사한 결과, 『논어의소』는 「학이」에서 1건, 『논어주소』에서는 「학이」에서 1건, 「위정」에서 2건이 중복됐다. 여기에서는 「학이」편에서 중복되는 ‘曰’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다.

49) 皇侃(梁), 『論語義疏』(基本古籍庫).

50) 본문에서 인용한 『설문』 “曰, 詞也.” 해석은 『설문해자주』 권9 司부, “詞, 意內而言外也.”라는 허신의 해설과 이 구절에 대한 단욱재 주석을 참고 및 적용하였다(段

입에서 기운이 나오는 모습을 본뜬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즉 ‘曰’은 발어사이다. 이 다음 부분이 공자의 말이므로 ‘子曰’로 시작하였다. (曰者, 說文云, 詞也. 從口乙聲. 亦象口氣出也. 然則曰者, 發語詞也. 以此下是孔子之語, 故以「子曰」冠之.)⁵¹⁾

『논어주소』에서도 역시 『설문』의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논어의소』의 인용과는 또 다르다. 『논어의소』에서는 ‘曰’의 의미 자체를 설명하고, 공자가 말하는 행위가 다음 내용으로 이어져 나온다는 것과 연결한 데 반해, 『논어주소』에서는 『설문』 내용을 근거로 자형의 구조를 분석하고 ‘曰’의 발어사로서의 기능에 더 주목하였다. ‘曰’의 자형 설명을 근거 삼아서 속으로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충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논어의소』와 『논어주소』의 설명이 다른 일차적인 이유는 각 주해본에서 인용한 『설문』 원문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두 주해본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논어정의』에서는 『설문』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떤 설명을 하는지 살펴보자.

③ 『논어정의』

『논어정의』에서는 본고 앞부분에서 살펴본 기본 체제에 따라, 이 구절의 ‘曰’자와 관련한 황간과 형명의 소를 제시하고 이 둘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은 『논어』 「학이」편 ‘曰’자에 대한 『논어정의』 주해의 일부이다.

황간의 『논어의소』에서는 『설문』을 인용하여 “입을 열고 혀를 움직여서 말하는 것을 ‘曰’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논어주소』 형명

玉裁注: 意卽意內. 言卽言外. 言意而言見. 言言而意見. 意者, 文字之義也. 言者, 文字之聲也. 言者, 文字形聲之合也. 凡許之說形, 說聲皆言外也. 有義而後有聲. 有聲而後有形. 造字之本也. 形在而聲在焉. 形聲在而義在焉. 六藝之學也.)

51) 何晏(魏)注, 邢昺(宋)疏, 『論語注疏』(基本古籍庫).

의 소에서는 『설문』에서 “속으로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입[口]’에서 뜻을 취하고 ‘을(乙)’에서 음을 취하였다. 입에서 기운이 나오는 모습을 본뜬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인용한 『설문』 내용이 다르다. (正義曰: 曰者, 皇疏引『說文』云: “開口吐舌謂之爲曰.” 邢疏引『說文』云: “詞也. 從口乙聲. 亦象口氣出也.”, 所引『說文』各異.)⁵²⁾

유보남은 앞서 편찬된 두 주석서에서 인용한 『설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서 ‘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추가로 인용하여 이 글자의 기본의미를 확정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옥재는 “‘口’와 ‘乙’의 뜻을 취하였다. 입에서 기운이(공기가) 나오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라고 교정(校定)하고, 『경전석문』 「효경」(孝經)을 인용하여 “‘乙’이 입 위에 있다는 데에서 뜻을 취하였다. ‘乙’은 기운을(공기를) 본뜬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입에 기운이(공기가) 생긴다.”고 하였다. 그래서 ‘曰’자의 윗부분이 터진⁵³⁾ 것이다. (段氏玉裁校定作“從口乙. 象口氣出也.” 又引『孝經釋文』云: “從乙在口上, 乙象氣, 人將發語, 口上有氣.” 故曰字缺上也.)⁵⁴⁾

『논어정의』에서도 이전 시기 주석서에서와 마찬가지로 ‘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앞선 시기 다른 주석서에서 인용된 『설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을 언급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보남은 『논어』 구절에 사용된 주요 글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 후 각 구절의 의미를 풀고자 했다. 이 작업은 옛 자형을 기준삼아 의미 풀이를

52) 劉寶楠(淸), 『論語正義』(十三經淸人注疏), 中華書局, 1990, 2쪽.

53) 이것은 유보남이 ‘曰’의 전서(篆書) 자형을 두고 한 말이다. 전서자형: 𠄎 (자형출처 『설문』 권5 曰부, www.zdic.net).

54) 劉寶楠(淸), 『論語正義』(十三經淸人注疏), 中華書局, 1990, p. 2쪽.

한 『설문』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이전 시기 두 주석서에서 인용한 『설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보남의 주석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주석을 하려는 글자 의미에 대한 『설문』 인용문이 단일하지 않다면, 그중 타당한 쪽을 선택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원문을 정확하게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 주소본에서 서로 다르게 인용한 『설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남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이다. 유보남은 “‘口’와 ‘乙’의 뜻을 취하였다. 입에서 기운이(공기가) 나오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乙’이 입 위에 있다는 데에서 뜻을 취하였다. ‘乙’은 기운을(공기를) 본뜬 것이다.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입에 기운이(공기가) 생긴다.”라는 단옥재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曰’의 글자 모양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단옥재의 해설이 더 타당하다고 여김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단옥재는 『설문해자주』 ‘曰’에 대한 주석에서, 이전에 유통되던 몇몇 판본의 풀이가 틀렸으므로 『경전석문』 「효경」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를 바로잡는다고 하였다.⁵⁵⁾ 이 내용을 인용하여 두 『설문』 판본에서 다르게 풀이한 ‘曰’의 의미를 확정하고,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입에 기운이(공기가) 생긴다.”라는 단옥재의 의견과 ‘曰’의 전서(篆書) 자형 ‘𠄎’에서 윗부분이 터진 모양을 연관 지었다. 단옥재 의견을 인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형과 의미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자신의 ‘판단’도 부가한 방식이다. 이전 시기 주석서에서 『설문』이 글자 의미 설명을 위한 기본 자료였다면, 유보남의 『논어정의』에서 그것은 글자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자료임과 동시에, 다른 근거를 통해서 다시 검토하고 따져보아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위에서 본 예처럼, ‘曰’의 본의를 풀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했던 자료로서만 인용됐던 것이 아니라, 판본에 따라 여러 버전의 의미풀이가 나열

55) “各本作从口乙聲、亦象口气出也。非是。孝經音義曰、从乙在口上、乙象氣。人將發語、口上有氣。今據正。”(『설문해자주』 권5 曰부, ‘曰’에 대한 단옥재의 주석 참고).

될 경우 그에 대한 검토 및 교정도 『논어정의』 주석의 과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논어정의』가 비교적 늦은 시기에 편찬된 주석서라는 점, 그리고 당시 실질적 근거에 따른 결론 도출을 중시했던 학술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앞의 예를 통해 설명하자면, 단옥재의 교정사항을 추가로 인용하여 이전 시기 주석서에서 인용한 『설문』까지 교정한 셈이고, 이 때 단옥재의 교정 내용은 단옥재 주석 내에서 인용한 또 다른 문헌의 내용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 유보남은 여기에서 나아가, ‘曰’자의 자형이 이 글자의 본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을 전제로 단옥재의 ‘曰’자 풀이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유보남의 『논어정의』 주해에서 『설문』을 인용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은 이처럼 다양한 근거를 통한 검증이 중첩되는 현상을 동반한다. 경전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글자의 본래 의미를 엄밀하게 따져서 확정해야 한다는, 유보남을 포함한 당시 학자들의 학술태도 또는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3.2. 『맹자정의』(孟子正義)와의 대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보남은 『논어』의 각 구절에 사용된 각각의 글자가 지닌 정확한 뜻을 밝히기 위하여 『설문』의 의미풀이 인용으로 주해를 시작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내용에 덧붙여서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자서와 옛 주해의 내용을 경문 의미를 설득력 있게 풀이하기 위한 근거로 삼았다. 『논어정의』의 이러한 특징은 청대 건가시기에 걸쳐 두각을 드러낸 고증학파 — 특히 양주학파(揚州學派) — 의 학술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헌을 이루는 각 구문의 의미를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구문을 구성하는 글자 하나하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고,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글자의 발음과 자형을 의미 파악의 요소로

활용하는 검증단계를 중시한 것이다.

자서를 인용하여 의미 풀이에 적극 활용한 주해 방식이 『논어정의』만의 것인지 아니면 청대에 저술된 주석서의 보편적 특징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시대 다른 주석서에서의 『설문』 인용 경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초순의 『맹자정의』에서 『설문』을 인용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서 유보남의 『논어정의』에서의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맹자정의』 「양혜왕상(梁惠王上) “王曰: 叟, 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왕이 말했다. 선생께서 천 리를 멀다 않고 오셨으니, 역시 이 나라를 이롭게 하고자 하심인지요.)에 대한 주석에서 “曰, 辭也.”(曰은 말함이다.)라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초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설문』 曰부에서 “曰은 말함[詞]이다.”라고 하였고, 司부에서 “詞는 속으로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辛부에서 “辭는 말함[說]이다.”라고 하였다. … 曰은 ‘말함[詞]’으로 풀이해야 한다. 여기 주석에서 ‘辭’라고 한 것은 통가자로서 쓴 것이다. (正義曰, 說文曰部云, 曰, 詞也. 司部云, 詞, 意內而言外也. 辛部云, 辭, 說也.⁵⁶) … 曰, 宜訓詞. 此注作辭, 通借字也.)⁵⁷

‘정의(正義)’는 ‘정확한 또는 본래의 의미’를 뜻한다.⁵⁸ 『논어정의』와 『맹자정의』는 경전의 정확한, 또는 본래의 의미를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맹자정의』에서 『설문』을 인용하는 방식은 『논어정의』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2장과 3.1. 논의에서

56) 『맹자정의』 원문에서 인용한 ‘辭’자에 대한 『설문』 해설은 “辭, 訟也.”인데, 단옥재는 “辭, 說也.”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설문해자주』 권14 辛부, ‘辭’에 대한 주석 참고.

57) 『설문해자주』 권14 辛부, ‘辭’에 대한 단옥재 주석 참고.

58) 「漢語大詞典」.

다뤘듯이, 『논어정의』에서는 주해 대상 단어의 의미 풀이를 위하여 『설문』의 의미풀이를 인용할 뿐만 아니라, 자형구조 분석 및 의미의 인신과 가차 용법까지 두루 살피는 방법을 사용했다. 반면 『맹자정의』에서 『설문』은 경문의 의미를 풀이하는 데 필요한 의미를 확인시키기 위한 자료로서 제시하고, 글자 자체 분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주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확연히 다르다. 『맹자정의』에서는 『설문』 내용이 의미풀이를 돕는 여러 참고자료 중 하나라고 할 만큼 비중과 역할이 적다. 이 점은 『논어정의』에서 각 글자의 기본 의미를 대부분 『설문』을 통해 제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글자의 구조와 연원과 용례 등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⁵⁹⁾ 비슷한 시기에 나온 주석서임에도 불구하고 두 책에서 『설문』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각 주석서의 저자가 경전의 ‘정의’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유보남의 『논어정의』에서 『설문』은 어떤 의미였을까?

3.3. 『논어정의』의 『설문해자』 인용의 의미

『논어정의』에서 이전 주석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하여 劉娟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꼽았다.⁶⁰⁾

- (1) 이전 연구 성과를 충분히 수용하였고 특히 청대의 주석과 고증을 많이 수용하였다. 각 주석에 대하여 충분히 고증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오류를 정정하고 타당한 의견은 수용하였다.

59) 『맹자정의』에서는 『설문』을 인용한 횟수가 600건이 넘는다. 하지만 그중에서 각 글자의 본래 의미, 인신의, 가차의 등 의미의 변화 과정까지 세세하게 설명한 예는 거의 없다(검색: 基本古籍庫).

60) 劉娟(2012), 「『論語正義』與『論語集釋』比較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pp. 32-33.

그 중에서도 특히 청대의 주석과 고증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을 폭넓게 수집하여 수록하였다.

- (2) 건가(乾嘉) 학풍을 적극 따라서 주석에서 문자훈고, 역사사실 고증 및 경문의미 해설을 중시하였다. 특히 고대 전장(典章), 명물(名物), 제도(制度), 풍속, 예절, 역사사건 및 인명과 지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주석 및 고증하였다. 이전 사람들의 주석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많았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자신의 판단은 보류하고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였다.
- (3) 한위(漢魏) 시기의 옛 주를 인용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들 옛 주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논어』의 주석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채웠다.

청대의 주석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타당성을 따져 보고, 각 한자가 가리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큰 비중을 두었다는 점, 그리고 인용문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청대의 많은 한학(漢學) 전문가들이 책을 저술하고 발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도 있었겠지만,⁶¹⁾ 무엇보다 책의 초고를 완성하기까지 고증을 위한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던 그들의 학술태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설문』이 유보남의 주석서에서 글자 의미 풀이의 근거자료로서 공고한 위치를 차지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설문』은 자형 분석을 토대로 한자의 본래 의미 및 본래 의미에서 비롯된 의미의 변화 과정을 따져보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의’라는 저서의 이름에 맞게 경문의 의미를 명확히 풀이하기 위해서는 주해 대상 구문을 구성하는 문자의 본래 의미 및 구문 안에서의 실제 의미를 밝혀야 한다. 경문의

61) 羅檢秋(2016), 「著書難爲稻粱謀——『論語正義』의 刊行及所見清代士人生活」, 『清史研究』, (4). 참고.

의미를 최대한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탄탄한 근거를 토대로 한 의미해설 지침이 필요했을 것이고, 『설문』이 지침서 역할을 한 것이다.

『논어정의』는 『논어』의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주석서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어』 구문을 구성하는 글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논어정의』에서는 이를 위하여 『설문』을 비중 있게 인용하였고, 글자의 자형과 발음을 고려한 ‘정확한 의미’ 확정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렇다고 『설문』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증자료를 활용했다.⁶²⁾ 경전의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 여러 근거를 분명히 검토해야 한다는 비슷한 지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옥재의 『설문해자주』 주해 방식도 『논어정의』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⁶³⁾

한편 『논어정의』에서 『설문』 인용을 중심으로 문자의 의미 변화 및 다양한 용례를 제시한 점은 경전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탄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을 수 있으나 때로는 지나치게 번다해져서 경문의 의미 풀이가 아닌 이전 주해의 시비를 가리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는 단점도 안게 되었다.⁶⁴⁾ 『논어』 「위정」의 “子曰：人而無信，不知其可也。大車無輓，小車無軌，其何以行之哉！”의 ‘輓(예)’자에 대하여 『논어주소』에서는 “『說文』云：輓，大車輓端持衡者，輓輓前也。是輓者，輓端橫木以縛輓者也。云「小車，駟馬車」者，『考工記』兵車、田車、乘車也，皆駕駟馬，故曰駟馬車也。”라고 하여 ‘輓’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62) 黑學靜(2008), 「劉寶楠『論語正義』對『說文解字』征引論析」, 『平頂山學院學報』, (6), p. 108.

63) 유보남의 주석에서 단옥재의 의견을 수용한 현황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64)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論語後案』과 『論語正義』 비교를 통해 『論語正義』에서 세세한 자료 중심의 주해를 하는 과정에서 미처 주의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 다음의 논문을 참고 바람. 顧遷(2011), 「『論語後案』『論語正義』詮釋之異趣」, 『求索』, (4).

지 이전 시기 주요 문헌에서의 용례를 소개하는 데 그쳤다. 반면 『논어정의』에서는 원문에 등장하는 ‘輒’과 ‘輒(월)’자 및 해당 구문을 구성하는 글자에 대하여 약 2,000자 분량의 인용 자료를 제시하며 각 글자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다른지를 세세하게 따졌다.⁶⁵⁾ 이와 같은 인용은 관련 주석을 한 데 모아서 보여줌으로써 해당 글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는 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을 준다. 하지만 어떤 글자가 의미 풀이의 대상인지 잇을 만큼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대한 인용 자료가 원문의 뜻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단점은 『논어정의』만이 아니라 당시 고증에 지나치게 몰두했던 비슷한 부류의 서적들에서도 보인다.

4. 맺음말

유보남의 『논어정의』는 이전 시대 주석의 성과를 흡수하고 동시대 학자들의 주석과 고증 자료를 수용한 청대를 대표하는 『논어』 주석서이다. 『논어정의』를 살펴보면 문자에 대한 훈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을 대단히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전 시대의 주석과는 달리 『설문』을 훈고와 고증의 근거로 방대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유보남은 『설문』을 때로는 의미 해설의 근거로, 때로는 문자의 본형과 본의, 인신의 등을 파악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문자학 저술로서 『설문』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설문』에 대한 이러한 편향성은 당시의 학술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대진(戴震, 1724-1777)에게서 시작되어 단옥재를 거치면서 왕성해진 글자 본연의 의미 탐구는 그것을 통한 경전의 본뜻 추구와 그렇게 찾은

65) 劉寶楠(清)(1990), 『論語正義』(十三經清人注疏), pp. 67-71.

본뜻이 경전이 담고 있는 궁극의 ‘도(道)’라는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문학(說文學)의 흥성은 경전에 대한 당대의 이러한 인식과 함께 공고하게 자리 잡았고, 그 결과 각종 문헌에 대한 주해에서는 구문을 구성하는 글자들의 의미를 따져보고 검증하며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 대진의 학문을 계승한 단옥재는 일찍이 스승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나의 학문은 글자로 경전을 고찰하고, 경전으로 글자를 고찰하는 것 밖에 없다.’고 하셨다. 내가 『설문』을 주해한 것은 대개 이 말에서 취한 것일 뿐이다.”(昔東原師之言, 僕之學, 不外以字考經, 以經考字. 余之注說文解字也, 蓋竊取此二語而已.)⁶⁶⁾ 문자학과 경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러한 인식은 『설문해자』에 대한 활발한 연구로 이어졌다. 당시에 왕명성(王鳴盛, 1720-1797)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설문』을 읽지 않았다면 하나도 읽지 않은 것과 같다.”⁶⁷⁾고 말한 것을 보면 『설문』이 당시 학자들에게 얼마나 권위 있는 서적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경문의 본의를 밝히는 데 있어 글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설문』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서적으로 자리 매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논어정의』는 경전에 대한 주석서다. 유보남은 주해의 담당자로서 경문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더 많은 근거를 통해 경문의 원래 의미를 밝혀야겠다는 자세로 임했을 것이다. 이 점은 다른 각종 문헌에 대한 다양한 주석, 다른 청대 학자들의 성과 등에서 여러 근거를 인용해 제시했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설문』을 집중적으로 인용하여 글자 자형에 따른 본의를 따져보는 등 자신만의 방

66) 陳煥의 「說文解字注跋」(張其昀(1996), 『說文學源流考略』, 貴州人民出版社, pp. 139-140. 재인용).

67) “說文爲天下第一種書, 讀遍天下書, 不讀說文, 猶不讀也. 但能通說文, 餘書皆未讀, 不可謂非通儒也. 『說文解字正義·序』.”

식으로 문자 해설에 몰두한 점을 유보남 『논어정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는 당시 학술풍토의 영향 속에서 ‘철저한 고증’을 행하겠다는 유보남의 태도, 즉 경문의 의미를 최대한 ‘틀림이 없이’ 풀이하기 위하여 글자의 의미를 하나하나 확정하는 일을 중시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참고문헌

【자 료】

- 許慎(漢)·徐鉉(宋)(1989), 『說文解字』, 中國書店.
皇侃(梁), 『論語義疏』(基本古籍庫).
何晏(魏) 注, 邢昺(宋) 疏, 『論語注疏』(基本古籍庫).
段玉裁(清)(1991),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王鳴盛(清), 『說文解字正義』(基本古籍庫).
劉寶楠(清)(1990), 『論語正義』(十三經清人注疏), 中華書局.

【논 저】

- 문준혜(2010), 「『說文解字』의 수용양상—清代 說文學의 성립과 발전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Vol. 60.
정약용 저, 이지형 역주(2010), 『論語古今註』, 사암.
汪耀楠 저(2014), 신승운 외 역, 『주석학개론』, 韓國古典翻譯院.
耿佳(2012), 「清代寶應劉氏『論語』詮釋類著作研究」, 『劍南文學(經典教苑)』, (2).
顧遷(2011), 「『論語後案』『論語正義』詮釋之異趣」, 『求索』, (4).
羅檢秋(2016), 「著書難爲稻粱謀——『論語正義』의 刊行及所見清代士人生活」, 『清史研究』, (4).
_____(2006), 「漢宋之間:寶應劉氏의 學術傳衍及其意蘊」, 『清史研究』, (3).
劉建臻(2007), 「清代寶應劉氏家學述略」, 『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4).
柳宏(2004), 「清代『論語』全釋史論」, 揚州大學 博士學位論文.
_____(2002), 「台灣學者研究劉寶楠『論語正義』成果述評」, 『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06).
劉娟(2012), 「『論語正義』與『論語集釋』比較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劉征(2014), 「探析『論語正義』據『說文』考證本字」, 『長春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5).
陸曉華(2001), 「論劉寶楠『論語正義』의 訓詁方法及特點」, 『安徽教育學院學報』, (02).
李春強(2014), 「明代『論語』詮釋研究」, 揚州大學 博士學位論文.

- 班吉慶(2001), 「劉寶楠『論語正義』征引『說文解字』略論」, 『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6).
- 張其昀(1996), 『說文學源流考略』, 貴州人民出版社.
- 趙航(2005), 「評『論語正義』」, 『南京曉莊學院學報』, (1).
- 朱華忠(2002), 「清代『論語』簡論」, 華中師範大學 歷史文化學院 博士學位論文.
- 馮曉斌(2017), 『清代揚州學派『論語』詮釋研究』, 揚州大學 博士學位論文.
- 何林英(2008), 「『論語集注』與『論語正義』解釋方法之比較」, 『社科縱橫(新理論版)』, (2).
- 黑學靜(2008), 「劉寶楠『論語正義』對『說文解字』征引論析」, 『平頂山學院學報』, (6).

원고 접수일: 2018년 4월 10일

심사 완료일: 2018년 4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2일

ABSTRACT

On the Citation of *Shuowen Jiezi* (說文解字)
in *Lunyuzhengyi* (論語正義)

Moon, Sujeong* · Moon, Joonhye**

Lunyuzhengyi (論語正義) by Liu Baonan (劉寶楠) is an annotated book that compiles the diverse achievements of previous annotations and a wide range of comments and achievements made by scholars.

Comments were made on *The Analects* in the book called *ZhengYi* using the KaoZheng (考證) method, which interprets Confucian Classics based only on the evidence. It can be distinguished by the fact that it demonstrates an aggressive use of *Shuowen Jiezi* (說文解字), compared to other works.

Specifically, *Shuowen Jiezi* is cited as the basis of the semantic commentary in the *ZhengYi*; as the basis upon which the main character (本字) is distinguished from the temporary character (假借字), and as the basis for describing the original meaning (本義) and the derived meaning (引伸義). Most of the citations using *Shuowen Jiezi* are necessa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tents; however, some contents that are supposed to be discussed mainly in the field of graphonomy are also included. This

* Lecture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henomenon is closely related to the recognition, starting from Dai Zhen (戴震) and extending through the Duan Yucai (段玉裁), that the ultimate principle (道) can be reached through a quest for the original meaning of each letter. This recognition brought encouragement to *Shuowen Jiezi* studies, which resulted in more attention being paid to verifying and explaining the meaning of the letters used in the texts of the annotations on various documents. *Lunyuzhengyi* (論語正義) demonstrates a propensity towards *Shuowen Jiezi*, which was a general tendency for the KaoZheng scholars of the Qing (清) Dynasty, and it also became a characteristic of the Yangzhou School (揚州學派) which Liu Baonan was a member of.